

KREI NEWSLETTE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4년 7월 27일 발행 (월간·비매출) 등록 서울 라-02663(1982.4.29) 발행·편집인 이정환(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3299-4000/인쇄인·김제극/(인쇄·주)문위사)

연구결과 활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 활용 고객의견조사 결과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고서가 농업정책수립과 연구 등에 널리,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연구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고정배부처와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고객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연구결과, 연구·정책 등에 활용

이번 조사에서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이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획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냐는 질문에 91.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현재 하는 업무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71.0%가 '자주 이용한다'고 답한 반면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에 그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보고서를 주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냐는 물음에 '연구활용'(32.2%), '정책대안 수립'(29.0%), '리포트 등 교육자료 활용'(19.4%), '기타'(19.4%)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고서의 질에 대해서 응답자 중 67.7%가 공정성과 객관성에 만족하고 있으며, 연구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66.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 비해 질적 수준 개선도 60.2%가 만족하고 있고, 연구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52.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할 만족도, 농업관측 가장 높아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48.4%가 '만족'하고 있는 반면 '불만족'은 5.4%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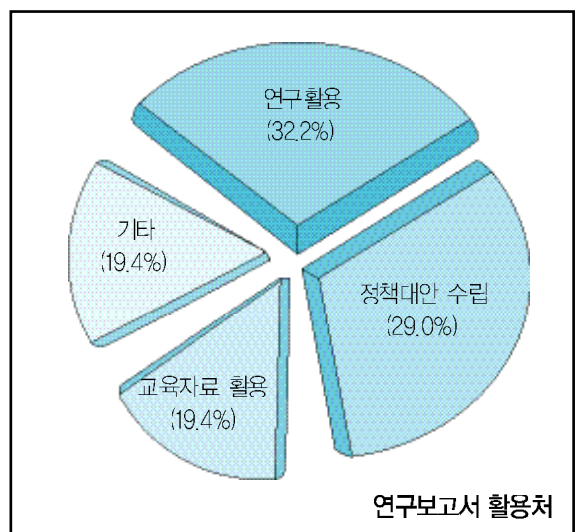
그쳐 과반수에 가까운 고객이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사업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 등 농업관측분야', '농업·농촌 정책담당자에 대한 도움', '관련 학문분야에의 학술적인 기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야 하는 연구분야에 대한 물음에 '농업구조 및 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그 다음이 '농업소득증대와 농가경제 안정화', '농촌 지역개발과 농외소득개발', '개방화·국제화에 대응', '친환경농업의 확대', '지역농업개발과 지방농정의 개혁', '첨단농업기술의 개발 및 정보화', '소비자 지향형 식품공급체계', '농촌생활환경과 복지개선' 순으로 조사되었다.

입수와 이용 편리, 편집·디자인 만족

수요자들이 간행물의 입수와 이용 편리 정도의 물음에 89.4%가 '입수가 용이하다'고 답했고, 보고서의 전체적인 편집과 디자인도 74.2%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이번 조사된 수요자의 의견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결과물의 품질향상과 고객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업관련 학회 공동사무실 개소

우리 연구원은 원내에 농업관련 학회 공동사무실을 마련하여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이정환)와 한국농업정책학회(회장 정명체),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권오욱) 등 3개 학회가 공동으로 학회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학회공동사무실이 7월초에 개소됨에 따라 앞으로 3개 학회는 상호간에 더욱 활발한 정보교류는 물론 다양한 학회 활동을 연합하여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무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회원 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학회공동 사무간사는 김세라 씨가 맡게 되었으며 주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 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별관 206호, 전화번호는 02 3295 4045, 팩스번호는 02-3299-4373 이다.

연구 부서별로 중간검토회의 가져 을 연구사업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



지난 7월 22일 가진 농촌발전연구센터 중간검토회의

- △농촌농가 인구 및 농업노동력 증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 △농업농촌관련 토착자원의 권리보호체계 수립 방안
- △농촌 자연산업의 활성화 방안
-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주민참여형 마을개발

올 연초에 연구를 시작한 연구과제에 대해 그 동안 연구를 검토하는 중간검토 회의가 각 연구부서별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연구를 시작하면 설계 세미나를 가져 연구책임자가 향후 연구 계획을 발표, 내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연구 자문을 받아 연구방향을 설정해 연구에 들어간다.

과제별로 연구를 수행하며 수시로 검토회의를 비롯 전문가 초청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연구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7월 중하순부터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 부서장 주재하에 중간검토회의를 갖는다.

그리고 11월부터 결과세미나를 가져 그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 계획대로 연구가 추진되었는지 평가 받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연구를 마무리 한다.

올해도 연구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에 이루어진 중간검토회의 연구과제명은 다음과 같다.

-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2/2)
-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1차년도)
-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 도입 방안 연구
- △지방농정과 지역농업개발 성공사례: 성공유형과 요인
- △친환경 축산을 위한 가축사육권 거래제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완화 방안(1/2)
-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2/3)

- 사업의 평가와 모형정립
-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 분석
- △농업부문 사회갈등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 한칠레 FTA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중국 산동성의 주요 체소 생산유통실태와 변화 전망
-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 정책과 남북협력(2/2)
-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 과제 동북아경제협력체 창설의 농업 부문 파급효과 계측(2/3)
- △한중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및 추진방향
- △신지유동 혁신 전략과 농협의 역할
- △농가소득 보전 및 안전망 체계 확립 방안
- △쌀 농업의 구조 변화 동향과 전망
-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
- △세계농업 전망모형 Aglink 2004 운용개발연구
- △쌀 관세화 유예협상 시나리오 분석과 협상전략
- △2004년 쌀 재협상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외국전문가 초청 세미나 가져

우리 연구원은 7월 5일 연구동 5층 회의실에서 일본 오비히로대학 사사키 이치오 교수를 초청해 '지역순환의 삼각형 네트워크'란 제목으로, 그리고 7월 15일에는 중회의실에서 일본 교토부립대 미야자키 다케시 교수를 초청해 '일본 그린투어리즘 현황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연구진, 학술 활동 참여 활발

우리 연구원은 한국농업경제학회 등 농업관련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등 학술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전북 익산대에서 열린 한국농업정책학회(회장 정명채) 하계학술대회에서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이 '지역농업 클러스터 추진방안'이란 제목으로, 김홍상 연구위원이 '농업부문 사회갈등 실태와 관리·해소방안'이란 제목으로 각각 논문을 발표하고, 김용택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권오욱)가 7월 2일 농협 서울시지역본부에서 개최한 하계심포지엄에서는 신승열·허덕 연구위원이 '21세기 축산물 수급전망 및 대응전략'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이정환)가 7월 8일과 9일 충북 속리산 레이크힐스호텔

에서 개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는 송미령 부연구위원이 '지방분권시대 농촌개발정책의 재편과 쟁점'이란 제목으로,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이 '농업구조의 쟁점과 진로'란 제목으로, 권오복 부연구위원이 '농업경제학에서 거래비용경제학의 유용성'이란 제목으로, 조성열 전문연구위원이 '위싱턴 사과생산의 최적출하분 모형'이란 제목으로 각각 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정명채 선임연구위원과 박성재, 김용택, 정정길 연구위원, 사진교 부연구위원, 김배성 전문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식품유통학회(회장 허길행)가 7월 14일과 15일 농협 설악공계수련원에서 개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 김정필 부연구위원이 '농산물공동계신의 중요성과 단계별 추진전략'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고, 황의식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협동조합, 남미 과수, 식품안전, 모형개발 등 KREI 세미나 4차례에 걸쳐 개최



‘남미 과수산업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7월 5일 가진 KREI세미나

우리 연구원은 6월 29일 서중일 前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을 초청해 중회의실에서 ‘협동조합의 개혁과제’란 주제로 KREI 세미나를 가졌다.

지난 7월 5일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마리아 필라 라포 씨를 초청해 중회의실에서 ‘남미의 과수산업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KREI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구원 과수 및 식품관련 연구자는 물론 외부에서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또한 지난 7월 13일 대회의실에서 농업부 양태선 소비안전과장을 초청해 ‘바람직한 식품안전관리체계’란 주제로 KREI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중회의실에서 미국 미조라대학교 팻 웨스트호프 교수를 초청해 ‘축산편측 분기모형 구조 개발’과 ‘미국과 세계농업모형 구조’란 제목으로 2차례로 나눠 KREI 세미나를 열고 토론을 했다.

벤처농기업 크리포 졸업

우리 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에서 3년간 보육을 받은 숯제품 생산업체인 크리포(대표 김광호)의 졸업식이 지난 7월 13일 원장실에서 있었다.

좋은 보고서 만들기 모임

내실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모임이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임은 이성복 부연구위원이 그 동안 수집·정리해 발간한 ‘쉬운 문장 좋은 글’, ‘우리말 바른 표기’ 등 2권의 책을 교재로 하여 더욱 좋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해 출발하였다. 이 모임은 지난 6월부터 매주 목요일 12시 30분에 정기적으로 갖고 있으며 더욱 탄탄한 문장으로 내실 있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좋은 보고서 만들기 모임에 참가하여

함께 토의하길 원하면 이성복(3299-4222) 부연구위원이나 이병훈(3299-4235) 연구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 논문작성 도우미방에 들어가면 논문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다.

KREI CI-MI 논의

우리 연구원 CI(이미지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KREI CIMI(기관 이념계구축) 논의를 위한 부서장 및 실무추진위원회 연석회의가 7월 13일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는 박성재 CI실무추진위원장이 그 동안 KREI MI 논의된 것을 발표한 뒤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위원장은 6차례에 걸쳐 KREI MI 설정을 위해 부서 및 부서장 회의와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을 정리해 발표하며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우리 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것과 AGRF를 통해 연구원의 비전과 미션, 슬로건, 연구원 건물 및 시설명 공모를 한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원 MI를 결정한 뒤, CI 입찰공지를 하고 본격적으로 KREI CI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희대와 정보 상호 이용 협약 체결



허길행 부원장과 경희대 김수중 도서관장이 협약 체결

인당 5권의 책을 14일간 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 이용은 경희대 도서관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경희대도 우리 연구원 자료를 대학원 재학생,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때는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자료실에 제출하면 된다.

우리 연구원은 이번 경희대와의 정보 상호이용협약 체결을 계기로 연구원에서 구비하고 있지 못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연구뿐만 아니라 교양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국회도서관을 비롯 관련 기관과도 정보 상호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 공유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농업구조 조정과 규모화 정책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농업경영의 규모 확대는 생산의 효율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이러한 근거가 되는 명제는 농업생산에 규모 경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며, 규모 경제성을 확인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농업 경제학의 연구 분야로 중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업의 규모 경제는 어느 정도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농가의 평균 경지규모가 1ha 정도로 영세농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규모 경제를 실증 분석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연유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농이 출현하면서 쌀생산비 통계를 이용한 경제 분석이 시도되었으며,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규모 효과가 확인되고 특히 비용함수 계측을 통해 논벼의 장기평균비용곡선이 1.2ha를 가진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은 중요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규모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

최근에는 비용함수를 빌리지 않더라도 경영규모 계층별 생산비를 비교함으로써 규모 경제를 판단할 수 있다. 2002년 쌀 생산비 통계에 의하면, 경지규모 0.5ha 미만 계층의 10a당 생산비를 100으로 보았을 때, 1~3ha 계층이 92 수준, 5ha 이상 계층이 86 수준이다. 즉, 경지규모 5ha 이상 농가의 생산비가 0.5ha 이하 농가 보다 14% 낮은 것이다. 그런데 대농은 임차지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용역비가 높는데, 토지용역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경지규모 5ha 이상 농가의 생산비는 0.5ha 이하 농가 보다 20%나 낮아진다. 이것은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쌀 생산의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10a 당 경영비는 대농일수록 높아져 5ha 이상 농가 계층이 0.5ha

미만 계층보다 22%나 높다. 5ha 이상 농가 계층의 임차지 비율은 72%에 달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임차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농지 임차를 통해 경영규모를 확대하게 되면 임차료 부담이 증가하여 경영비는 높아지지만, 경영규모를 확대할수록 농가의 총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아무튼 대농일수록 생산비가 낮고 토지순수익이 크기 때문에 임차료 지불능력이 높으며, 따라서 농지임대차 시장에서 소농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불하고 농지를 집적할 수 있는 것이다.

대농은 이러한 경쟁력에 기초하여 지난 10년간 임차지를 집적한 결과 5ha 이상 농가는 경작지의 72%가 임차지로 구성될 만큼 치지농화되었고, 대농으로의 경지집중 현상이 현저하게 진행되었다. 농업총조사에 의하면 1990년에는 논 3ha 이상 농가의 호수 비중이 1.2%, 면적 비중이 6.2%였으나, 2000년에는 각각 3.8%, 20%로 늘어나 대농의 생산 집중도가 3배나 높아졌다.

사전적 농가선별은 지양해야

그러나 규모 효과가 있다고 해서 경영규모에 따라 농가를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규모 경제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 모든 대농이 소농보다 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소농이지만 꾸준히 규모를 확대하여 대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농가도 존재한다. 농업기본통계에 의하면, 경지 3ha 이상 농가 중 연간 7%는 규모를 축소하고, 1.0ha 규모 농가 중 연 9%는 규모를 확대하여 규모계층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한 시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 선택과 지원의 집중이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영세 자작농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도 쉽게 영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쌀 생산비 통계에 의하면 영세 자작농의 10a 당 소득은 76만원 수준이고, 쌀 가격이 50% 하락하더라도 29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논농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영세농의 존재가 우리나라 농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에 결정적 역할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농업총조사에 의하면 논 0.5ha 미만 농가의 면적 비중이 14%에 불과하므로, 이들 영세농의 농지를 전부 다른 농가에게 이양한다 하더라도 평균 경지면적이 5백 여평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0.5ha 미만 농가의 호수 비중은 42%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추진하게 되면 대단히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켜 농정 전반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다양한 경영체의 경쟁체제가 중요

따라서 농업구조정책은 농업의 기능을 역할 분담하는 체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국민경제적 기능은 안정·안전한 식량공급, 국토자원 및 환경 보전, 농촌인력 고용과 소득기회 제공, 농촌사회의 규모와 기능 유지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및 농가 유형별로 적절하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세농의 무리한 이탈농 촉진보다는 다수의 농가를 유지하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다양한 경영주체가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정책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정책이 농가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는 추진 방식 전환이 요구된다. >

DDA 모델리티 기본골격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김 상 현 연구원

지난 7월 16일 수퍼차이 WTO 사무총장과 오시마 일반이사회 의장의 주도 아래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안(framework)이 제시되었다. 소위 '오시마(Oshima) 초안'이라 불리는 이 기본골격안은 관세감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회원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7월말까지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타협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초안은 구체적인 감축수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핵심 쟁점에 관하여 주요 이해 당사국(그룹)간에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DDA의 향후 일정을 감안할 때 7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안, 조화를 기본원칙에 뒤

이번에 배포된 초안은 관세 및 무역외국 보조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관세감축방식은 작년 3월에 배포된 허빈슨초안과 같이 관세수준에 따른 구간별 감축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세구간의 개수와 기준 그리고 구간별 감축방식과 폭은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의 관심사항인 관세상한의 경우 그 역할에 대하여 추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향후 관세상한의 향배가 주목된다. 고율관세의 경우 감축률 확대와 더불어 관세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이중의 규제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추후 검토한다는 표현은 이전의 초안에 비해 관세상한이 확실히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초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민감품목이 초안에 구체화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민감품목의 최

대허용 개수로 각국이 관세할당물량(TRQ)으로 관리하던 품목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TRQ품목 그 자체인지 아니면 TRQ품목의 개수를 의미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접근은 관세감축과 TRQ 증량의무를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TRQ증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도국의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TRQ증량을 면제하고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 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보조분야는 기존 데르베즈 초안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농업보조총액(AMS)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감축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품목별 AMS에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데르베즈 초안과 동일하다. 최소허용보조도(7-9)이 주장했던 철폐가 아니라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블루박스도 기존 생산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블루박스에 추가하여 새로운 블루박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과거 특정기간 평균 농업생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별보조를 모두 합친 보조총액(즉 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을 다시 규제하고 있는데 이 때에도 조화원칙을 적용하여 보조총액이 클수록 감축규모도 커진다.

민감품목 융통성이 피해규모 결정

이번 초안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구체적인 감축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세감축의 경우 축산물과 과일류를 제외한다면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조화원칙은 우리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 농산물의 대부분은 시장접근물량을 운영하고 있어 민감품목의 대상이 된다. 쌀을 비롯한 고추, 마늘, 양파, 보리, 대두, 고구마, 감자, 유제품, 감귤, 인삼, 전분류 등 실품목 기준으로 63개(HS 10단위로 190개)가 TRQ관리 품목이기 때문에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감축폭을 작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감축에 따른 실질적인 과급 영향은 민감품목의 관세감축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7월말 일반이사회가 분수령될 듯

시장접근분야보다는 국내보조 감축이 더 큰 문제다. AMS,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 각각에 대한 감축은 물론 이를 모두 합한 보조총액도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품목특정 AMS는 과거의 지불규모로 상한이 설정되어 DDA 타결이후 우리 농정의 신축성을 상당히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를 이용할 여지가 생긴 것은 다행이지만 보조총액에 대한 규제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에 제시된 오시마 초안은 7월 21일부터 개최되는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의를 거쳐 7월 27~29일 소집되는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견이 대립되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만 제시한 수준의 초안이기 때문에 어느 회원국도 뚜렷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안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 EU 집행위원 교체 등의 주요국의 국내 정치 일정 때문에 DDA는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초안이 합의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브릭스(BRICs)의 등장과 성장 원동력

브릭스(BRICs)란 말이 최근 지상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세계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국가로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국의 영문 머리글자를 조합한 말이다.

이 말이 주목을 받고있는 것은 인구 대국이면서 풍부한 자연자원과 높은 교육수준의 영향으로 고도성장을 하고 있고, 더구나 50년후에는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6대 경제대국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브릭스의 경제규모

브릭스가 세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0월 미국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사의 보고서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에서이다. 이 보고서에서 4대국의 경제성장률, 1인당 소득, 환율 등에 대해 2050년까지의 분석결과가 발표되었다.

브릭스의 경제규모는 2002년 현재 2조 5,000억 달러로서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것이 40년 이내에 G6(미, 일, 영, 독, 불, 이)을 추월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실제 경제력의 비교를 보면, 환율이 아니라 물가 격차를 감안, 구매력기준으로 조정한 2003년도 국내총생산(GDP)으로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일본이 3위, 인도가 4위, 브라질, 러시아 각각 9위,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브릭스 4개국이 10위권에 진입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브릭스가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원동력은 인구 증가와 함께 풍부한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점과 외국자본이나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인적·물적 자원이 성장 견인

인구면을 보면 2000년 현재 세계 인구 10위권에 브릭스가 모두 포함되며, 4개국만으로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한다. 2050년에는 인도 16억명(1위), 중국 14억명(2위), 브라질 2억 3,000만명(8위), 러시아는 다소 감소한 1억 2,000만명(15위) 등 37억명으로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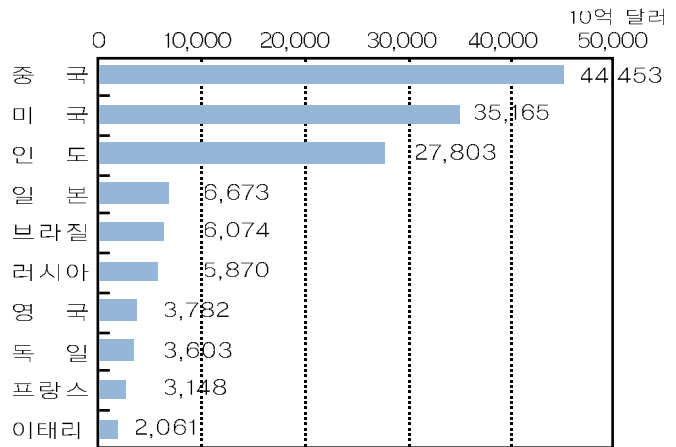
자연자원 중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확인된 매장량을 보면, 석탄은 2002년 현재 중국이 세계의 30%(1위), 인도 7%(4위), 러시아 5%(6위) 등이고, 석유는 러시아 11%(2위), 중국 5%(5위), 천연가스는 러시아 22%(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금속자원을 보면 철광석은 브릭스가 세계의 56%, 알루미늄의 35%, 마그네슘의 67% 등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FAO의 '2000년 세계산림자원평가'에 의하면, 중국

의 산림면적은 1억 6,348만ha(국토면적의 17%), 인도는 6,411만ha(20%), 브라질 5억 3,249만ha(62%), 러시아 8억 5,139만ha(50%) 등 브릭스 합계로는 16억 1,147만ha로서 세계 산림면적의 42%를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광대한 농지자원을 배경으로 농업대국을 형성하고 있다. 곡물과 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국내자금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수출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도 브릭스의 강점이다.

브릭스의 명목 GDP, 2050년



자료: 골드만 삭스, 2003.10

브릭스와의 협력강화가 과제

골드만 삭스의 전망대로 브릭스가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G6 대열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이다. 연령구성이나 출생률 등의 면에서 현재의 선진국에 비해 우위성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또 물적 자원이 풍부하여 생산성향상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향후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브릭스간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도·중국간, 중국·브라질간 교역과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DDA에서도 협상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브라질, 인도, 중국은 G20의 주도국으로 등장하였고, 더구나 브라질과 인도는 G5로서 WTO 148개 가맹국 중 미국, EU, 호주와 함께 중요 5개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게 되면 브릭스의 정치력은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에도 브릭스의 동향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와의 적절한 관계개선을 통한 교역확대와 협력강화가 우리나라의 성장에 불기피해지기 때문이다. <김태근 부연구위원>

WTO 농업협상 '급물살' 전망 ... 농협법 개정안 확정

구간대방식 기초로 의장초안 제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그룹간에 참여한 이해대립으로 7월말까지 마련키로 한 세부원칙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난항을 거듭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은 7월 16일 오시마 쇼타로 일빈이사회 의장 초안이 공식 발표되면서 협상의 흐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되었다.

하지만 언론들은 '오시마 초안'은 최대 쟁점인 농산물 시장 접근에서 브라질과 인도를 포함한 20개 개도국 그룹(G20)이 최근 제시한 '구간대 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국들이 반대해 온 관세상한 설정 등에 대해서도 유동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우리 농업은 쌀 협상과 DDA 협상의 틈에 끼어 진퇴양난에 빠진 양상이라고 진단하였다.

특히, 이번 초안에는 특별품목(SP, Special Product)등 개도국에는 상당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도국 지위 유지여부도 향후 우리 농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핵심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농협법 개정안 확정...전문경영체제 도입

정부는 6월 29일 농협중앙회를 회장 중심의 경영체제에서 책임성이 강조되는 대표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체로 전환하고, 일선조합은 자율적인 합병을 통해 규모화·전문화시키면서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농협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이를 농협개혁에 정부가 나선 것으로 분석하면서 농협도 경쟁체제로 들어섰다고 해석하였으며, 일부 언론은 핵심쟁점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문제가 빠졌다고 지적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했다는 점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농연은 성명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농협개혁은 농협법 개정뿐만 아니라 농협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한국 7.16>이 농협법 개정안을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농연이 성명을 통해 <한국이 일부 이익집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산업계, 한-일 FTA '제동' ... 한-미 FTA '촉구'

지난 7월 2일 한·미 경제회의에서 양국간 FTA체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한 이후 속도가 붙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FTA체결 4년 뒤 미국의 대한 농산물 수출 증가액이 104억달러로 추산됐을 정도로 농업에 민감한 국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들은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농업계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한·미 FTA가 경제적인 협력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라고 정부에 촉구하였다.

반면, 2005년 타결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 협상이 진행된 한·일 FTA와 관련해서는 농업분야에 상당한 수출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재계와 산업계가 잇따라 산업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 없이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제조업의 설 땅이 없어진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고, <사경>과 <대경> 등 언론들도 산업계의 피해 대책 등을 요구하며 협상 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농산물 구입시 안전성 중시 비율 1년새 2배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7월 14일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서울 성남 안산 등 수도권 소비자 1,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식 조사 결과, 농산물을 구입할 때 농약과 원산지 등 식품의 안전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농산물 구입 때 소비자들이 우선하는 기준으로 53.6%가 농약과 원산지, GMO(유전자 조작) 등 안전성이라고 응답해 지난해 조사(29%)에 비해 24.6%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농약을 치지 않은 것(19.9%)'이라는 응답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것(17.3%)', '몸에 좋은 것(16.6%)'이라는 응답을 앞질러 농약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하였다.

"여성농업인 연간 노동가치 23조원"

7월 7일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결과 연간 23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GDP 545조원(2001년)의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국내 15세 이상 농기여성 중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152만명으로 벼 재배 농가 여성의 하루 노동 시간을 농업노동 5.3시간, 가사노동 3.8시간으로 산정해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을 지역 평균 임금 3만7천500원으로 계산한 결과 연간 23조원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김동원 전문연구원>

과수산업 발전방안 모색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과수 전문가 토론회 연구원에서 7월 19일 개최



과수 전문가들이 모여 과수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7월 19일 가져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과일 관측팀은 지난 7월 1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DDA와 FTA 등으로 과실시장의 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수산업의 비전을 설정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협, 품목별 전문가, 지자체와 유통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필 부연구위원이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뒤 농림부 과수화훼과 여인홍 과장이 토론회사를 맡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과수산업의 동향 및 수급전망, 경쟁력여건, 과수산업 비전 및 목표,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를 했다.

주제발표후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생산량 목표치는 수급의 안정화에 맞추어서 설정되어야 하며, 목표치와 전망치 사이를 좁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과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생산이므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뿐만아니라 토론자들은 생산과 유통을 연계하는 생산자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한 농가 참여의 구체적인 방안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통체계미련이 필요하며 고품질 유지를 위한 쿨드 체인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

시했다.

또한 과실 소비에 대한 연령층별 구매·소비 패턴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해서 과실의 부가적 수요창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고품질 상품의 유통차별화, 광고, 홍보 전략 마련 및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원장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 위촉



우리 연구원 이정환 원장은 7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다.

국민경제자문자문회의는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정환 원장 등 경제 각 분야 전문가 27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가진 첫 회의에서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국민경제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구진 대외활동

△김용택 연구위원은 6월 26일부터 중국에서 열린 WTO 가입 후 중국 삼농문제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박동규 연구위원은 7월 12일 충북대 농업과학기술센터에서 창업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쌀 유통 현황과 개선 과제'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최지현 연구위원은 7월 20일 민주당 정책위 주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식량자급률 목표달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창용 연구위원은 7월 9일 건국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농기계 렌탈 및 리스제도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석현덕 연구위원은 7월 13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밤나무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의 밤 재배 및 생산현황'이란 제목으로, 7월 20일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충남 농정발전방향 대토론회에서 임업분야 발표를 했다.

△박시현 연구위원은 6월 29일 제천시청에서 WTO·FTA에 따른 농촌관광 필요성 및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성명환 연구위원은 EIT 대표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허장 연구위원은 7월 14일 한국농업전문학교 녹색관광리더반 교육에 참석해 강의를 했다.

△장철수 부연구위원은 7월 9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열린 한국 밤 재배자 협회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다.

△박문호 부연구위원은 6월 29일 목포녹차시험장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수입개방에 따른 녹차산업 발전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송미령 부연구위원은 6월 30일 경기도 제2청사에서 경기도 전문가 콜로키움 주제발표를 했다.

△박재홍 전문연구원은 7월 20일 농업전문학교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촌관광리더와 소비자 농업 등에 대해 강의했다.

△김계환 연구원은 7월 19일 필리핀에서 열린 APO 세미나 발표를 위해 출국했다 23일 귀국했다.

연구원 내방객

△대만 농업경제학회 회원 16명이 지난 7월 7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 우리 연구원 연구자들과 양국 농업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구원 인사

△김명환 선임연구위원(복직)